

---

# 자아와 세계의 탐색, 길에 관한 명상

-김소월의 「길」, 윤동주의 「눈 오는 지도」,  
박목월의 「가교(假橋)」-

김현자 · 문학 평론가 / 이화여자대학교 명예 교수

---

## 1. 길을 떠나는 시인들

끝없이 길게 펼쳐진 길, 혹은 저 언덕 너머로 소실점만 남기고 사라져 간 길들은 사람의 마음을 유혹한다. 아침저녁으로 늘 똑같은 길을 오가는 우리의 일상은 반복에서 비롯된 권태로 닳아 있지만, 새로운 길에 대한 갈망은 늘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다. 길은 멈춰 있으면서도 움직이고 아무 것도 없으면서도 모든 것이 있는 역설적인 공간이자,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삶을 모두 투영하는 원형적인 공간이다.

가 보지 않은 길, 선택을 기다리는 몇 갈래 길, 떠나고 다시 돌아오는 길, 이 모든 길은 천 갈래 만 갈래로 복잡하게 얼크러진 우리의 마음을 닳았다. 이런 내밀한 미로로서의 길은 한 곳과 다른 곳을 이어주기도 하고 이곳과 저곳의 거리를 벌려 놓아 쉽사리 돌아올 수 없는 단절된 곳으로 만들어 버리기도 한다. 길은 늘 그렇게 무심히 있는 듯하지만 마치 사람의 마음과도 같아서 통로와 폐쇄의 지도를 스스로 지니고 있는 존재인 것이다.

길의 공간성은 언제나 도달해야 할 목적지를 갖고 있다는 데에서 드러난다. 길은 출발과 도착의 의미를 지니는 행위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길은 탐색의 과정을 상징한다.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구체적인 과정으로서의 길인 동시에, 그곳에 다다르기 위해 시련을 극복해야 하는 정신적인 과정으로서의 길이다. 길은 생명의 끊임없는 움직임과 연관되는 공간이기에, 길의 심상에 나타난 시인의 태도는 한 시인의 시적 세계관과 그 맥이 닿아 있다.

## 2. 김소월의 길-십자로 위에서의 망설임

길 위에서 서성거리는 것이 시인된 자의 운명임을 맨 먼저 체득한 사람은 소월이었다. 일상이라는 공간에 뿌리내릴 수 없는 사람은 저쪽을 꿈꿀 수밖에 없기에, 이곳과 저곳은 필연적으로 모순된 공간으로 자리한다. 그리고 이 모순이 빚어내는 갈등의 체험은 늘 길 위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은 김소월의 시에서 ‘가다’와 ‘오다’ 또는 ‘돌아오다’ ‘돌아서다’라는 서술어의 대립적인 중심축으로 드러난다.

눈은 내리네 와서 덮이네.  
 오늘도 하룻길  
 칠팔십리  
 돌아서서 육십리는 가기도 했소

- 「산」 중에서

생의 머뭇거리기, 살아가는 동안 무수하게 와 닿는 선택의 질문, 즉 가고자 하는 마음과 머물고자 하는 마음, 방향과 정착에 대한 두 명제는 인간을 영원히 머뭇거리게 하는 운명이다. 이곳과 저곳 또는 행동과 멈춤 사이의 망설임은 시간의 유한성과 결부되면서 더욱 비극적인 응시의 시선

을 획득하고 있다. 이처럼 소월의 시선은 끊임없이 길 위에서 흔들리고 있으며 따라서 세계와 쉽사리 동일화를 이루지 못한다. 오히려 그의 길은 더욱 더 심오한 운명의 여로를 따라 펼쳐진다. 「길」에는 탐색의 여행길에서 발견한 변전(變轉)의 길이 제시되어 있다.

어제도 하로밤

나그네 집에 가마귀 가왓가왓 울며 새었소

오늘은

또 몇 십 리(里)

어디로 갈까.

산으로 올라갈까

들로 갈까

오라는 곳이 없어 나는 못 가오

말 마소, 내 집도

정주 궩산(定州 郭山)

차(車) 가고 배 가는 곳이라오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공중엔 길 있어서 잘 가는가?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열십자 복판에 내가 섰소

갈래갈래 갈린 길

길이라도

내게 바이 갈 길은 하나 없소

- 「길」 전문

화자는 길을 선택해야 할 “열십자”의 공간에 서 있다. 자기가 알 수 없는 어떤 의지에 휘몰려 방황하며 날아야 하는 그 비상이 운명적이라는 점에서 기러기와 화자는 같은 운명에 처해 있다. 지상에서 나그네가 또 몇십 리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듯이 공중에서도 기러기가 열십자 복판에 서서 가야 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다. 열십자의 길은 구체적으로 “갈래갈래 갈린 길”로 나타난다. 그러나 화자는 그렇게 많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이 갈 길은 없음에 “내게 바이 갈 길은 하나 없소”라며 탄식한다. 여기서 ‘길’은 혼돈된 자기 심정의 상징으로 나타난다. 아무리 많은 행로가 그 앞에 있더라도 자신이 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없다는 절망의 뿌리는 갈 곳 잃은 자의 절망감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내면적 갈등은 특이한 시적 아름다움을 형상화하고 있다. “울며 새”는 나그네 집이나 “정주 객산”의 내 집은 현실의 집인 동시에 허구의 집이라는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 그의 시선은 수평적인 네 갈래 길에서 수직적으로 상승하면서 공중의 기러기가 다니는 “열십자 복판”으로 솟구쳐 오르고 있다. 즉 나그네 집의 화자와 나그네 집에서 울며 새우는 가마귀와 공중의 기러기는 길을 찾아 헤매는 변전(變轉)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즉 본래적 자아의 모습을 찾아 방황하는 길이 탐색 과정의 다양한 변형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즉 지상의 길은 물론 공중의 길조차도 방황의 갈림길로 포착한다는 것은 소월의 길이 자기 구제를 위한 내면의 탐색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한국 현대 시에 나타난 ‘길’의 이미지들은 이곳과 저곳, 또는 현실과 꿈 사이의 망설임으로 나타나면서 내면과 세계 사이의 경계로 옮겨간다.

그리고 수많은 사유의 길들과 이어지게 된다. 1920년대에 소월이 서 있었던 자리가 “열십자 복판”이었다는 점은 이런 의미에서 매우 상징적이다.

### 3. 운동주의 길 -길 찾기를 위한 지도(地圖)와 미래 시제

운동주의 ‘길’은 소월과 달리 명료한 전진의 방향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 길을 따라간다 해도 목적지에 쉽게 다다르지는 못한다. 오히려 그 길목 길목은 끊어져 있으며, 깊은 자아 성찰과 고독한 정적에 휩싸여 있다. 운동주의 길은 잃어버린 역사 위에 새로 그리는 지도이기 때문이다.

순이가 떠난다는 아침에 말 못 할 마음으로 함박눈이 내려  
슬픈 것처럼 창 밖에 아득히 깔린 지도 위에 덮인다.  
방 안을 돌아다보아야 아무도 없다. 벽과 천장이 하얗다  
방 안에까지 눈이 내리는 것일까. 정말 너는 잃어버린 역사처럼 훌훌히  
가는 것이냐.  
떠나기 전에 일러둘 말이 있던 것을 편지를 써서도 내가 가는 곳을 몰  
라 어느 거리, 어느 지붕 밑, 너는 내 마음속에만 남아 있는 것이냐. 눈  
이 녹으면 남은 발자국 자리마다 꽃이 피리니 꽃 사이로 발자국을 찾아  
나서면 일 년 열두 달 하냥 내 마음에는 눈이 내리리라.

- 「눈 오는 地圖」 전문

이별이라는 상실감은 바깥 세상(‘지도 위’)과 ‘방 안’, 그리고 ‘내 마음’을 하얀 눈으로 뒤덮는다. 하얀 눈이 텅 빈 공허감과 상실감을 자아내는 것은 바로 발자국들이 남아 있는 지도를 뒤덮어 역사 자체를 잃어버린 것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운동주에게 있어서 길의 상실은 곧 지도의 상실이 되며, 이 눈에 뒤덮인 지도는 역사적 존재로서의 자아를 파편화하고 고립시키는 것이 된다. 따라서 아무런 방위 감각도 갖지 못하는 자아는 지도 위의 한 점으로 망각되어 갈 것인지, 또는 자신만의 길을 찾아 새로

지도를 만들어 갈 것인지 하는 실존적 선택 앞에 놓이게 된다. 운동주의 선택은 “내 마음”속에 남아 있는 발자국을 따라, 꽃을 피우는 것이었다. 지도를 지우고 길들을 은폐시키는 눈을 헤치고 피어나는 꽃은 바로 고독한 자아 성찰과 내면의 응시가 찾아낸 역사적 이정표이다. 흐릿하게 남아 있는 발자국을 응시하는 시선은 「자화상」에서 “산모퉁이 논가 외딴 우물”을 들여다보는 시선, 그리고 「참회록」에서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을 응시하는 시선과 그대로 연결된다. 이 고독한 응시가 꽃피운 길은 역사적 방위 위에 그려진 새로운 지도이기에, 운동주의 길은 항상 미래라는 시간을 향해 열려 있고, 그 길을 걷는 이의 의지 또한 투명하다.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 「새로운 길」 중에서

“내”와 “숲”과 “고개”와 “마을”을 이어 주는 길은 새로운 지도를 찾아가는 것이기에 항상 새로운 것이며 미래 지향적이다. 하지만 눈이 발자국을 지우듯, 이 길들은 항상 현실의 장애들에 막혀 있으며, 그때마다 시인 특유의 부끄러운 서성거림과 내면의 깊은 성찰이 지도 위에 드리워진다.

운동주의 시에 나타난 길의 이미지는 잃어버린 역사 위에서 지도를 찾는 행위의 연속선상에서 존재한다. 따라서 ‘길을 걷는’ 행위 자체가 바로 시인의 진지한 삶의 자아 성찰을 위한 행위이며, 동시에 길은 지도와 역사라는 방위를 갖고 있기에 항상 새로움과 희망과 도약을 위한 매개항이 된다. 그 길은 새롭게 만나야 할 대상들을 수없이 담고 있으며, 장애물 또한 많다. 그러나 발자국 위에서 피어난 꽃이 때로는 밤과 우주의 이정표

인 '별'이 되어서 "나에게 주어진 길"(「서시」)을 밝혀 준다. 따라서 그 길은 오늘도 가야 할 미래를 위한 다짐과 의지의 길이 된다.

#### 4. 박목월의 길-몽상의 길을 지나 실존의 길로

박목월의 초기 시에서 시인은 원경(遠景)적 구도에 의해 길을 바라본다. '머언 길', '黃土 먼 산스길', '가느른 가느른 들길', 등 길은 멀고 아득하여 비의(悲意)를 머금고 있는 듯이 느껴진다. 화자는 길로부터 떨어져 있다. 주로 화자와 풍경 사이에 길이 존재하는 것이다. 풍경 속으로 사라져 가는 길을 원경에서 바라보기에 화자의 눈에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나 시련보다는 고개나 비탈을 돌아서 보일 듯 말 듯 가늘게 이어지는 길의 아득함이 더 잘 포착된다.

가느른 가느른 들길에/머언 흰 치맛자락 - 「가을 어스름」 중에서

휘휘 휘 비탈길에/저녁놀 곱게 탄다 - 「산그늘」 중에서

생각처럼 그리움처럼 ...../길은 실낱 같다 - 「길처럼」 중에서

따라서 길이 환기하는 정서는 곧 아득하게 점점이 이어지는 여로가 주는 사색적이고 몽환적인 슬픔으로 나타난다. '절로 슬픔이 일어나는 길'이나 '울음이 돌고 있는', '울며 가는 길' 「달무리」에서 나타나는 슬픔의 정서가 「청노루」에서는 '느릅나무 속잎 피어나는 열두 굽이'를 들여다보는 신비스러움이나 환상적 이미지로 변모하기도 하고, 「삼월」에서는 길의 끊임없음이 '열두 고개 넘어가는 타는 아지랑이'로 몽환적으로 상승하기도 한다.

원경적 시선은 「길처럼」에서처럼 풍경 밖의 공간에 고정되어 있어서,

대상과 나의 경계를 좁히지 못한다. 자신의 울음조차도 산울림으로만 돌아 나가고, 실낱처럼 가늘게 이어지는 길 위에서는 그리움도 눈물도 그냥 묘사적인 풍경의 한 부분으로 존재할 뿐이다.

그런데 화자가 길 위에 들어서서 자연의 대상과 직접 만날 때, 화자는 풍경 안에 동화되어 들어간다. 따라서 목월 초기 시에서의 길은 경계나 통로와는 다른 독특한 비현실적 몰입의 통로가 된다.

강나루 건너서

밀밭 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삼백 리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 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 「나그네」 전문

이 시의 '길'은 마을에서 마을로 이어지는 지속 구조를 갖고 있다. 강나루와 밀밭 길과 술 익는 마을은 남도 삼백 리의 외줄기 길에 의해 연결된다. 그 길을 나그네는 멈추는 법 없이 나아가고 있다. "구름에 달 가듯이" 훌훌히 자유롭게 보여지기를 바라고 있는 세계를 향하여 걸어간다. 인간



들의 목숨처럼 “외줄기”로 향하고 있는 길과 밤으로 가는 시간에서 타는 저녁놀과 석양빛의 마을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의 보행은 동일화되고 있다. 즉 공간과 시간과 그리고 인간의 일이 합일된다. 따라서 「나그네」에서 화자는 풍경 안으로 직접 들어가 슬프고도 가늘게 이어진 삶의 행로를 무심하게 걷는다. 그리고 풍경 안으로 몰입되어 일체가 된다.

이와 같이 목월의 초기 시에서 ‘길’은 경계에 자리하면서 운명적 망설임이나, 삶의 방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몽상적 거리를 확보해 주는 공간 또는 풍경 안으로 용해되어 들어가는 비현실적 몰입의 통로로서 존재한다. 그런데 화자를 둘러싼 풍경이 자연에서 일상으로 변화하고, 그 길이라는 통로가 일상과 자아의식 사이에 놓여질 때, 몽상의 몽환성이 부서지면서, 목월의 길은 실존적 탐색의 길로 열린다. 초기 시에서 수평적으로 원만하게 이어지던 길은 후기 시에 이르러서는 상하의 수직적인 급격한 낙차의 이미지로 치환되면서 그의 길은 “층층대”나 “지하로”, “우회로”로 변이된다.

시인의 이러한 현실 인식은 ‘나선통로(螺線通路)’·‘미로(迷路)’·‘가교(假橋)’ 등의 심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흔들리는 다리가 끝나면  
하지만 누구나  
자기가 바라는 곳에 이르게 되리라고  
믿는 것은 착각이다  
대체로  
전혀 생소한 곳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난간에 의지하여  
경악과 두려움으로  
사방을 두리번거리게 된다

- 「가교(假橋)」 중에서

「가교(假橋)」는 길이 끝나는 곳에서 맞닥뜨린 생소한 길에 대한 두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균형과 절제를 잃게 하는 다리의 흔들림은 불안한 마음의 상태와 동일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인의 강인함은 허무와 불안에 맞부딪치는 용기에서 비롯된다. 날카로운 직관, 현실적인 성찰로 자신이 가는 길을 객관화하면서 냉랭한 인간 조건에 대한 자각을 깨우치고 있는 것이다.

## 5. 시의 길, 정신의 지도

노래는 항상 길 위에서 만들어졌다. 「아리랑」은 길 떠나는 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부른 노래이고, 황진이는 ‘동짓달 기나긴 밤을’로 시작되는 시조에서 현실의 답답한 길을 박차고 나와서 우주적 시간애다 새 길을 내지 않았던가. 세계와 마주하여 노래하는 시인에게 있어 길은 자신과 풍경 사이의 경계이고 통로이며 동시에 실존적인 삶의 장소이기도 하다.

현대 시의 초기에 소월이 서 있었던 열십자 복판은 인간 운명의 상징적인 지형도이며, 우리시가 발견한 하나의 중요한 갈림길이기도 했다. 그 십자로로부터 운동주는 지도와 역사에 그려진 이정표를 탐색하면서 미래를 향한 다짐과 의지의 길을 걸었다. 또한 그 길은 목월의 자연에 대한 몽상 혹은 실존의 각박한 층층계와 미로(迷路), 가교(假橋) 등의 수많은 길들로 이어졌다. 현대적 삶의 혼돈스러움은 길 찾기조차 부질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이렇다 할 지도도 없이 모두들 흔들리며 밀려간다. 그래서 길은 땅 위에도 있지 못하고 그냥 가교로 걸려 있다. 하지만 가교 위에서 사방을 두리번거리는 사람들 틈에서 시인들은 여전히 이정표를 찾고 정신의 지도를 그려 나간다. 그래서 오늘도 시의 길은 지속된다.